

SUNBO NEWS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 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8년 11월 15일

vol. 178

주요 소식

선보 그린 등반대회 개최 선보 패밀리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



선보패밀리(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는 지난 10월 20일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그린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린등반대회는 선보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동료는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선보패밀리로서의 소속감 제고 및 화합 도모의 장으로 삼고 있다.

올해 등반대회가 열린 곳은 부산·경남지역의 대표 산행지인 영남알프스. 가지산, 간월산 등 영남의 대표적인 8개 봉우리를 안고 있는 영남알프스는 산세가 유럽의 알프스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을 만큼 수려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산행코스는 영남알프스 제3회의장부터 사자평에 이르는 구간으로, 왕복 3시간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코스였다. 은빛 역새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사자평고원은 무려 150여만 평의 넓이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역사군락지이다. 등반대회가 개최된 10월 말경은 특히 역새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던 터라 선보패밀리는 가족, 동료와 절경을 즐기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모처럼의 바깥나들이에 회사에서는 버스 및 등산에 필요한 식·음료를 준비해 직원들이 더욱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9시경 집결지인 영남알프스 제3회의장 앞에 모인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다대 1공장 김동섭 사우회 회장의 개회사와 최금식 회장의 격려

사를 들으며 마음가짐을 다졌다. 경품 추첨을 위한 추첨권 배부 및 미션 설명이 이어졌으며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다 함께 준비체조를 하였다. 집결지로부터 사자평고원까지는 1시간 반 정도의 코스. 가을의 절정에 이른 이날은 날씨도 선선하고 맑아 산행을 즐기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연신 웃음이 넘쳤다. 자녀와 함께한 직원들은 습지생태 및 영남알프스에 생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설명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다. 대회를 나누며 걷기를 얼마, 마침내 종착지인 사자평고원에 다다랐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은빛으로 빛나는 드넓은 역새평원은 그야말로 그림과도 같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산행 후 다시 집결지로 모인 직원들은 제1연회장에 마련된 후덤펀지 삼겹살로 식사를 하였다. 레크리에이션 강사까지 초빙된 식사 시간에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로봇청소기 두 대와 빔프로젝트, 등산가방, 스마트시계, 텀블러, 문화상품권 등 총 4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임직원 및 가족들은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선보패밀리로서의 소속감 및 화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김창규 실장 / 조선해양플랜트과 윤성혁 과장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우리 회사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김창규 실장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하였다. 김창규 실장은 최금식 회장과 간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사업 준비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그에 앞서 지난 10월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윤성혁 과장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글로벌지원센터 정창수 센터장이 본사를 방문하였다. 오후 2시경 선보공업 본사에 도착한 산업시찰단 일행은 최지영 사원의 안내에 따라 홍보관을 둘러본 뒤 의전실에서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플랜트 영업부서 윤동현 대리의 '선보의 제품 및 기술' 소개에 이어 최금식 회장과 사공운곤 부사장, 이지영 부장이 함께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조선선박 시장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는 데 이어 다대 2공장으로 자리를 옮긴 산업시찰단은 선보의 LNG 관련 주력 제품인 재액화시스템 및 FGSS 제작 상황을 둘러보았다. 또한 재액화시스템의 테스트 시험 설비로서 FGSS와 동일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 개의 대형 모니터로 실시간 상황을 조절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인 '테스트설비실'을 둘러보았다. 시찰단의 마지막 일정은 구평 1공장 방문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는 선보가 단순 제품 조립 및 제작 업체가 아니라 기술 개발과 설계까지 가능한 사업장임을 어필하였으며, 최근 추진 중인 LNG와 GREEN 신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조선기자재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는 담당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조선기자재 업체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고 우리 회사의 신사업 준비 현황 및 경쟁력을 파악하는 등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조선기자재 관련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산업시찰단의 방문이 현장 친화적 정책 수립 및 기조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방문

부산상공회의소 2018년 부산 우수기업 현장 탐방



지난 10월 15일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32명이 우리 회사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우리 회사가 '2018년 부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의 우수 기업 현장 견학을 위해 기획되었다.

방문단은 오전 10시 본사에 도착하여 홍보관을 둘러본 후 4층 교육장으로 이동하여 사업기획부 최지영 사원의 회사소개를 들었다. 이어 경영지원 서재욱 상무가 참여한 임직원과의 대화 시간이 진행되었다.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들로 방문단이 구성된 만큼, 학생들이 회사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환경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서재욱 상무는 "우리 회사는 꾸준히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용접, 배관, 전기를 다루는 생산직과 설계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은 모두 직영으로 채용하여 취업 후 사내 복지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채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현재 사내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경력과 능력으로 인정받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많다. 사회에서의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본인의 가치 또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해 현실적인 답을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2004년 입사한 물류관리 김수환 주임이 함께하였다. 김 주임은 2004년 선보공업 입사 후 2005년 부산기계공고(국립 마이스티고)를 졸업하고, 당사에서 용접 배관 전공을 살려 병역 특례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 올해 입사 14년 차인 김 주임은 "입사 당시 병역특례 혜택과 타 기업보다 나은 복지 혜택 때문에 선보공업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직 업무를 주로 담당했지만 현재는 생산직과 관리직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관리 부분의 담당 책임자로서 기량을 펼치고 싶다"라고 비슷한 길을 걸어갈 후배들을 위해 조언하였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꾸준한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우수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회사 소식

2018 부산마라톤 대회 참석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11일 본사 근처의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부산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부산마라톤대회'는 부산 유일의 풀코스 마라톤대회로, 풀코스(42.195km) 외에도 하프 코스(21.0975km)와 10km 코스가 진행된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벗 삼아 풀코스를 달릴 수 있다는 매력 덕분에 부산은 물론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올해에도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대회의 열기를 이어갔으며 우리 회사 역시 본사 근처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매년 참가하여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동료애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20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선보패밀리 52명이 참가하여 깊어가는 가을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참가자들은 절정에 이른 가을의 한가운데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코스를 달렸고, 참가자 모두 10km 코스를 완주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코스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들에게는 회사에서 특별히 준비한 갖가지 음식이 제공되었다. 천고마비의 계절 기분 좋게 땀 흘리고 즐기는 맛있는 음식, 동료 및 가족과 함께하는 모처럼의 나들이에 참가자들의 얼굴에 연신 웃음이 피어올랐다.

회사 소식

전사 소통간담회 활발히 진행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소통간담회가 올해에도 전사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소통간담회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공모 사업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다. 부서 간, 직종 간, 협력사 간 소통의 경로를 열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협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9월~11월 두 달간 재무인사, 사업기획, 총무안전, 영업팀을 시작으로 선보공업 품질팀, 다대2공장 조립팀, 전 공장 생산관리 및 경영지원, 사업기획팀 등의 소통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간 타 부서 간 교류와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간담회 자리에서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각 팀별 일정 공유 및 애로사항 전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당부 등 다양한 업무 관련 사항이 논의되었다. 각 실무자들은 간담회 현장에서 언급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들을 즉각 현장에 전달하여 차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간담회 후에는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한층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며 동료애를 다지고 선보패밀리로서 화합하는 기회로 삼았다. 업무 현장을 벗어나 보다 가벼운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통해 좀 더 유연한 소통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단체사업장 부문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1년간 국가 지원을 통해 소통간담회, 조직활성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을 도모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실현을 위하여 선보패밀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사내 복지

체지방 감량왕 선발대회 성료



11월 9일,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체지방 감량왕 선발대회의 시상식이 우리 회사 본사 4층 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체지방 감량왕 선발대회는 선보가족이 건강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토록 마련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을 거친 참가자 30명 중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다. 선발 기준은 단순한 체중감량이 아닌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체중에 도달하는 것. 총 배점 100점 중

합산점수 60점 이상 시 성공으로 간주하며, 체지방감소율, 근육량 증가비율, 체중감량, 기초대사량의 체성분을 측정하여 4개 부문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였다.

심사 결과 참가자 30명 중 5명이 우수자로 선정되었고, 총점 83점을 받은 설계5팀의 김갑진 부장이 최종 우승자로 선발되었다. 그 뒤를 이어 65점을 받은 박상언 차장, 남예철 대리, 박수영 계장이 2등상을, 62점을 받은 전민재 부장이 3등상을 수상하였다. 도전자들은 매월 3만 원씩 개인 적립금을 쌓아 8개월간 총 30만 원의 개인 적립금을 모았으며, 회사 지급액을 더한 100만 원(1등), 90만 원(2등), 80만 원(3등)이 각각 지급되었다. 총점 60점 이상을 달성한 모든 도전자들은 6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에 감량을 성공하지 못한 도전자들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2019년 4월 19일까지 총점 60점 이상에 도달할 시 개인 적립금과 성공 축하금을 포함한 총 60만 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해마다 금연펀드를 운영하여 선보가족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온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선보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안전

중점 안전 테마_ 화재·폭발·전도 예방의 달

4/4분기 중점 안전 테마는 화재와 폭발, 전도이다.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주기 바란다.

화재 폭발, 전도 안전사고 예방법



☑ 화재

- 화기작업 전 작업승인 신청, 안전조치 이행 상태 확인
- 용접 등 화기작업 중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
 - 작업 전 (이면/하부) 인화물질 제거 / 불반이포 설치, 화기감시자 배치 / 소화기 비치 / 호스류 이상 유무 확인(누출 및 손상 여부)
- 전열기구 안전 사용(미 인가 제품 사용 금지)



☑ 폭발

- 밀폐 공간 및 취약 구역 내 가스 누출 예방
 - 도장·화기 혼재작업 금지
 - 작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 방폭형 조명 설비 사용 / 소화기 등 소화 설비 비치
- 가스 호스 및 연결 부위 손상으로 가스 누출
 - 호스 니플 분리 및 연결부 불량 / 호스 균열 훼손 여부 / 차단 밸브 잠금



☑ 전도(넘어짐 사고)

- 안전 통로 확보(안전한 통로로 이동)
 - 바닥 물기 제거(미끄럼 예방) / 이동 시 위험지역·위험 장소 접근금지 표지판 부착 / 통로 바닥에 방해물 및 위험물 제거 / 부재 자재 정리정돈
 -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작업 통로 안전 조치
 - 사다리 안전 설치, 고막 철거/발판, 작업통로 핸드레일 설치/ 개구부 안전 조치

생일을 축하합니다

☑ 본사	이동준(11.02) 장호길(11.15) 박수영(11.16) 임동식(11.18) 사공운곤(11.24)	이화진(11.15) 고중현(11.16) 신유철(11.18) 임민지(11.18)
☑ 1공장	백선우(11.02) 조종환(11.24) 박주호(11.26) 김수환(11.28)	산토스(11.03) 강민구(11.26) 박주홍(11.26)
☑ 2공장	신누리(11.07)	박준영(11.10)
☑ 3공장	박재용(11.02)	상 굴(11.13)
☑ 구평공장	박규택(11.07) 박재호(11.15) 성기욱(11.24)	수 금(11.13) 이창주(11.21)
☑ 구평1공장	성 한(11.01) 오민석(11.05) 이창현(11.08) 소용한(11.11) 강요안(11.15) 이영근(11.16) 양병철(11.17) 박철우(11.19) 신상철(11.23) 최현창(11.26)	이수진(11.01) 박현일(11.08) 이고미(11.09) 권현준(11.13) 최동욱(11.15) 주복훈(11.16) 정원진(11.18) 이영철(11.22) 김용보(11.24) 김기철(11.30)
☑ 영암공장	안 디(11.30) 최규진(11.30)	이상숙(11.30)
☑ 영암공장	신용섭(11.14)	

임사 기념일

☑ 본사	박장혁(11.01) 이현수(11.01) 유무성(11.09) 성연우(11.16) 임동식(11.20) 이경진(11.27)	이종필(11.01) 남예철(11.04) 박수영(11.13) 이유진(11.16) 최순찬(11.24) 한국보(11.27)
☑ 1공장	홍봉걸(11.28)	
☑ 2공장	배승용(11.01) 허호인(11.01) 문수형(11.06) 신누리(11.06) 정혜성(11.16)	허준형(11.01) 김준수(11.06) 박준영(11.06) 김도윤(11.16) 김영자(11.21)
☑ 3공장	이현수(11.01)	
☑ 구평공장	권희정(11.01) 이태수(11.01) 이원규(11.07) 공대성(11.13) 손대석(11.14)	수 금(11.01) 신용화(11.06) 추용한(11.11) 오창배(11.13)
☑ 구평1공장	권현준(11.01) 박봉수(11.01) 김경연(11.08) 문용수(11.15) 이병민(11.15) 주복훈(11.15) 김도재(11.18) 오영준(11.18) 김형섭(11.22) 김창현(11.24) 이옥남(11.24) 박희문(11.25) 김광수(11.29)	김봉수(11.01) 이정훈(11.01) 김태경(11.13) 오갑항(11.15) 임일산(11.15) 강중원(11.18) 양군자(11.18) 구성훈(11.22) 정원진(11.22) 변정애(11.24) 김충민(11.25) 전형주(11.26)
☑ 영암공장	박상부(11.01) 서인권(11.01) 신준섭(11.01) 이용우(11.01) 임학원(11.01) 조성수(11.01)	박성철(11.01) 설상철(11.01) 이민현(11.01) 이효정(11.01) 정주경(11.01) 박현철(11.17)